

1. 자기 확신에서

모세의 120년 인생은 40년씩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궁궐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토막은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 토막은 '출애굽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궁궐의 화려함에 취해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하며 영혼의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가자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늘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대로 살고자하면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대로 살아야겠다는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그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동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위대한 결단을 한 후에 그가 행한 것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왜 모세는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자기 부인으로

40세 때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라는 대단한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가진 것이 많은, 자기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어가시는데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실패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여전히 그 안에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의로 가득찬 사람을 치유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사람으로 성장해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동안 '인생은 결단코 무엇인가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분신인 큰 아들을 낳고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니 아무것도 소유할 권한이 없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점점 하나님이 쓰실만한 편리한 도구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모세를 실패자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는 점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부인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과목이 '부인학'입니다.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1.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월-금): 새벽 6: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2. 코로나 관련 예배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예배 가능 인원은 본당 좌석의 10%까지 가능합니다.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진행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4단계 기간 동안에는 금요일기도회 쉽니다.
- 3. 성경쓰기 노트 - 출애굽기 성경노트를 배부합니다.
- 4. 비전헌금 - 지난주 드린 비전헌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 5. 꿈땅 재능기부/교사 모집 *일시 : 6월부터 8월까지 꿈땅예배 2부 순서(30분 내외)
*내용 : 구연동화, 마술쇼, 요리, 그림, 종이접기, 만들기, 레크레이션 등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는 활동
*문의 : 양정훈 팀장(010-7116-1365)
- 6. 7/8월 매일성경 판매 - 가격: 4천원
- 7. 교회학교 예배 -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 8. 청소 - 이번주 청소는 믿음2순(정용재)입니다.

** 중보기도(환우) **

* 류미순 전도사-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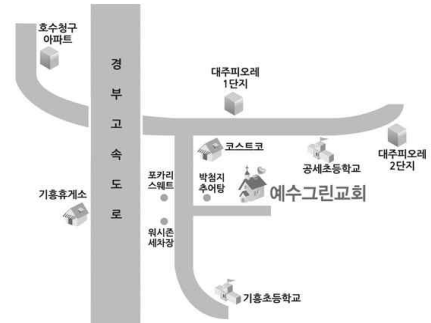
선교지 소식 조용일 선교사(케냐)- 케냐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현지인들과 조용일 선교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시도록, 구제사역으로 돕고 있는 마을들을 꾸준히 돕고 그들의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 양육 프로그램 안내 ●

1. 새가족과정(green family)
2. 일대일 동반자과정
3. 일대일 양육자과정
4. 성서지리와 역사
5. 행복한 부부학교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3부, 젊은이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유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1층 새싹홀
꿈땅예배	주일 오전 11:00	3층 비전홀
파워웨이브	주일 오전 9:00	3층 비전홀
새벽기도회(월~금)	매일 새벽 6:00	본당
수요 오전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 7:30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본당

● 섬기는 분들 ●

- 목사** 나계수
전도사 류미순
Pianist 김효성, 박소영
협력선교사 송중훈(광동성)
 장일규(필리핀)
 김요한(홍콩)
 조용일(케냐)
 오태기(싱가폴)

나계수 목사는 명지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습니다.
 은누리교회와 홍콩제일교회를 거쳐 수원 은누리비전교회에서 사역하였고 2005년에 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예수그린교회는 2010년 7월 3일 창립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예배공동체, 삶이 변하는 제자양육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공동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개척 공동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섬김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이 비전에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것입니다.

분을 하는 교회



-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 제자양육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선교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교회개척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섬김공동체

2021년 8월 8일 / 제 12권 32호

새벽기도회
 새벽 6:00
 월~금(매일성경)
 이사야서 강해
 설교 : 나계수 목사

예배 인도 : 나계수 목사

주일예배 1부(9시)
 2부(11시)

수요 오전예배
 오전 10:30
 당분간 쉽니다.

수요 저녁예배
 저녁 7:30
 당분간 쉽니다.

금요기도회
 저녁 8:00
 방역지침 4단계에 따라 쉽니다.

순예배
 각 순별로 모입니다

선포	찬양하여라(1절, 3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사도신경	다함께
신앙고백	경배와 찬양	다함께
경배와 찬양	통성기도	다함께
통성기도	기도	나계수 목사 (1,2부)

광고 인도자
 좋은신 하나님

설교 1부/2부 **출3:1~12** 나계수 목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축도		인도자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 * 8월 15일 대표기도 : 양정훈 집사(1부), 민성식 집사(2부)
- * 8월 22일 대표기도 : 최병수 장로(1부/2부)
- * 8월 안내위원 : 그린케어팀
- * 헌금위원 : 민옥화/김미연